

#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rchasing Behavior and Usag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lothing and the Disposal of Clothing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겸임교수 한 성 희\*

Major in Consumer & Child Studies of Incheon Univ.

Instructor : Han, Sung-Hee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posal of clothing and the purchasing behavior and usag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lothing. After compiling data from 500 consumers who reside in Seoul, it was analyzed by ANOVA, t-test, Chi-squar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behavioral score for bu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clothing was lower than the average value of the three. The lowest value was for the purchase of used clothing, but the purcha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clothing was also shown to have a low value. For the usage and disposal of clothing, unused clothing, which was mostly just left in dresser drawers, was the most preferable method. Also, exchange or resale via an Internet mall was shown to be lower than the other methods.

The analysis between clothing purchase and usage as well as the disposal of clothing with socio-demographics, consumption tendencies, opinions of friends and groups, commercials and advertisements, and environmental perceptions points out differences among groups.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urchasing intentions of slow fash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s. Female consumers between 20~25 years of age were more likely to purchase slow fashion clothing. Consumers with a high consumption tendency who were highly influenced by commercials, friends, and groups were more likely to purchase slow fashion clothing.

The influence of the average clothing expenditure o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urchasing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the age group on repairing and usage was the most effective. All in all, contribu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erception wa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

▲주요어(Key Words) : 의복구매행동(behavior of clothing purchasing), 의복활용 및 처분(usage, disposal of clothing), 슬로우 패션(slow fashion)

### I. 서론

오늘날 소비자의 의복구매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는 의복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의복을 장만하고 대물림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유행의 빠른 변화에 따라 의복을 구매하는 횟수와 이유, 사용기간, 사용가치에 변화가 생겼다. 의복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

\* 주 저 자 : 한성희 (E-mail : hsh2007ok@hanmail.net)

의복을 구매함으로써 특정 이미지를 표출하거나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의복의 내구성이나 기능성의 문제가 아닌 유행이나 소비자 개인의 싫증 등에 의해서 의복을 옷장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시키고 있다. 특히, 도시화된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의복의 처분은 다른 생활쓰레기에 비해 비교적 쉽다. 의복은 쓰레기종량제에 의해 헌옷으로 분류되어 분리수거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복 처분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대학의 보고서에서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을 폐기물을 양산하는 환경의 적으로 규정한다. 티셔츠와 스웨터의 값이 샌드위치 값보다 더 싸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패스트푸드(fast food)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주장한다(이미영, 2008 재인용). 패스트 패션이란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옷으로 음식의 패스트푸드(fast food)에서 유추하여 만들어진 말이다(국립국어연구원 2004년 신어보고서). 오늘날의 소비자는 간편하게 사먹는 패스트푸드와 같이 빠른 유행의 변화에 맞추어 저렴하고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쏟아져 나오는 의복을 손쉽게 구매하고 있다.

실제 세계의류산업의 동향을 보면 대량생산의 저가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섬유산업은 1980년대부터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티셔츠 10장 중 6.5장은 중국산인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의 발달로 특정 패션 및 유행이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의복의 저가시장 환경과 다양한 유통채널은 소비자가 유행에 따라 의복을 과다구매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러한 의복의 과다소비 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의류폐기물을 증가시킨다. 실제 영국에서는 연간 1인당 평균 30kg의 의복이 폐기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1/8만이 자선기관 등으로 기증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의복은 소각 또는 매립되는데 이에 따른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하다(이보은, 2008).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물에서의 저가의복판매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동용 티셔츠 한 장이 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로 1주일동안 1만장이 팔렸다고 한다. 이러한 저가의 의복은 원산지 노동자들의 불공정 노동에 의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의복은 또한 장거리 수송이 유발하게 되는 에너지와 온실가스문제를 야기한다. 우리가 손쉽게 구매하게 되는 의복은 그 생산과정에서부터 환경을 오염시킨다. 박정희(2008)는 의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 및 농약의 사용, 동물성 섬유 사육기간 중 배출되는 분뇨, 그리고 염색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염색과정 중 10-50% 염료가 폐수로 방류되고 있으며 방축·방추·위생가공 등에서 COD, BOD가 높은 폐수가 배출된다고 하였다.

친환경적인 의복소비행동은 의복의 구매뿐 아니라 의복의

활용 및 처분행동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수준의 향상과 저가의복의 만연에 의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의복의 수가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입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의복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병미·이재명, 1997). 이러한 현상은 의복의 폐기처분과정에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 및 건강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매되는 의복은 개인이 원하는 소비가치를 다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개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렇듯 의복소비행동은 개인의 취향과 습관 등과 관계되는 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하는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의복소비를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요인과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친환경적 소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소비자 처분행동(Nicosia, 1976; Hanson, 1980; Harrell & McConocha, 1992; 장경혜, 1996), 자원의 재활용행동(shim, 1995; 장경혜, 1996, 김병미·이재명, 1997)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치성향, 환경의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친환경적 의복소비를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사장의 복에 관한 연구, 의복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환경의식과 의복 재활용 및 구매에 관한 연구, 구매유형과 친환경적 의복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소비의 각 단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소비계층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인소비자의 일반적인 처분행동(이민표, 1999), 미혼의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복재활용처분행동(김시월·조향숙, 2000),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처분행동(서정희, 1997),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적 소비행동(김시월, 2003)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13세~30세 미만의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수행은 의복이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는 의복구매단계부터 소비자의 손을 떠나게 되는 의복처분단계까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친환경적인 의복소비행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복소비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선정된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환경의식 변수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변수, 그리고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와 같은 관련 변수들이 보완되었다. 이와 같은 관련변수들의 보완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기존의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의복소비행동에 단계별 분석과 관련요인의 영향

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 분석은 첫째, 친환경적 의복소비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의복소비행동에 필요한 중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의복소비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명하여 소비자가 의복을 소비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의복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소비풍토 조성과 함께 이에 필요한 정책 제안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구매행동은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더위나 추위로부터의 신체보호,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복 마련,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고 적당한 이미지를 전시하기 위해서 의복을 구매하게 된다. 의복을 구매하는 일은 단순한 소비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의복의 구매는 의복소비행동의 시작점이 되며 올바른 의복의 선택과 구매는 의복의 효율적인 사용과 경제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관여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의복은 선택을 위한 정보탐색과 그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한다. 합리적인 의복선택과 구매는 그 사용과 활용도가 높고 사용가치와 기간도 비교적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유행에 의한 선택이나 비계획적인 구매 등 비합리적인 의복구매는 그 활용도와 사용연한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의복의 합리적인 선택과 구매는 경제적인 의복소비행동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늘날 소비자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의복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옷을 장만한다는 개념에서의 의복구매가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손쉽게 표현하기 위해 의복을 구매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과 그에 따른 정보전달에 의해 의복구매는 보다 활성화되고 있으며 의복의 과다구매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복의 과다소비와는 달리 중고의복의 구매나 의복대여행동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허경옥, 2007). 노영래(1999)는 소비자의 재활용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시장에서 의복을 구매를 분석한 결과, 주말의 출근의상, 회사 내 근무복장, 재활용의식에 따라 중고시장에서의 의복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주말의 출근의상이 정장인 경우, 회사 내 근무복장이 출·퇴근복 그대로인 경우, 재활용의식이 높을수록 중고시장에서 의복을 구매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미·이재명(1997)의 연구는 대전시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환경오염을 적게 시키려면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초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주거형태의 4가지를 선택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의복구입 시 계획적인 구매와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복구입 시 중요시 하는 항목은 연령, 교육수준, 주거형태이었고 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입한 의류를 착용하는 기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구매 후 입지 않는 의복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의복을 구매한 후 관리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장소의 비용을 유발시키게 되어 가정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경옥(2007)의 연구는 소비자 구매행동유형에 따라 친환경적 의복소비행동을 분석하였는데 연구모델은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류관련 특성에 따라 친환경적 의복소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류구매행동을 유형화시켜 소비자의 집단을 분류한 후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고소득 소비자, 그리고 옷을 많이 소유한 소비자의 경우 중고의류를 적게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의류의 구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친환경적 의류소비생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알뜰구매형 소비자의 중고의류 구매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과다구매형 소비자의 중고의류 구매성향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김병미·이재명, 1997; 허경옥, 2007)의 결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의복구매 시 중요시 하는 항목과 중고의류의 구매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Chae와 Chung(1995)은 소비자의 환경의식수준과 의복구매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수 중 가계소득수준과 그 외에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가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Butler과 Francis(1997)는 소비자의 환경의식 태도가 의복관련 환경의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관련 환경의식 행동은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의식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국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용숙(1995)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환경의식에 따른 구매유형 및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계획구매, 환경마크상품구매, 중고의류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계획적인 구매를 하고 환경마크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며 중고의류에 대한 구매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순·서영숙(1998)은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의생활 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주부의 경우 재활용과 분리수거에 적극적이고 세탁 시 세제사용 등 절약적인 사용을 잘 하지만 의복의 구매와

관련된 환경행동에 있어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경우 의복을 구매하기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의식 수준은 높았으나 계획적인 구매나 중고의류 구매 등 직접적인 구매와 관련해서는 행동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주부의 경우 의복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의복의 구매에 있어서는 친환경성이 취약함을 확인시켜준다. 그 뿐만 아니라 환경의식수준은 높으나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의복관련 환경의식을 직접 친환경적 의복구매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환경의식은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이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하고 의복관련 환경의식을 중심으로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처분행동이란 제품 사용 후의 처리행동(Nicosia, 1976), 또는 제품의 원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그 제품을 적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박명희, 2005 재인용). 특히, 의복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수명을 다하여 처분되기보다는 유행이나 소비자 개인의 싫증 등에 의해 처분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처분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중요하다.

Veverka(1974)는 소비자들이 의복의 소유를 포기할 때 의복의 영구적인 처분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영구적인 처분방법으로 버림, 포기, 양도, 교환, 판매 등으로 구분하였다. Hanson(1980)의 연구에서는 처분과정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처분결정을 처분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품의 유지, 영구적인 처분, 일시적인 처분으로 구분하였다. 제품의 유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제품의 영구적인 처분은 버림, 기부, 판매, 교환을, 제품의 일시적인 처분은 대여와 임대로 제시하였다.

Harrell & McConocha(1992)는 처분행동을 이타주의적, 경제적, 비이타주의적 처분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타주의적 처분행동은 남에게 주거나 기부하는 것을, 경제적 처분행동은 판매 및 교환을 하는 것을, 비이타주의적 처분행동은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Harrell 등(1992)는 보관과 폐기와 같은 비이타주의적인 처분행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지만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의복과 관련된 소비자의 활용 및 처분행동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입지 않는 옷이 발생하는 원인과 사회인구학적

요인, 종교, 환경의식, 재활용의식과 소비자처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서정희(1995)는 울산지역의 주부소비자를 대상으로 내구재와 반내구재를 선정하여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관련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환경보존태도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울산지역주부들은 처분행동에 있어 환경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책임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의 제도적 기반확충과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환경보존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이었으며 다음은 종교로 나타났다.

김시월·조향숙(2000)은 미혼취업여성의 경우 의복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미혼취업여성을 조사대상자로 선택하여 의복재활용 처분행동을 분석하였다. 관련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변수, 의복 관련변수, 직업관련 변수, 환경관련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Harrell와 McConocha(1992)의 연구의 이타주의적 처분행동, 경제적 처분행동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의복의 비계획적 관리, 의복의 변형 및 체형변화의 원인, 유행추종의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의복 재활용 처분행동을 이타적, 경제적 재활용 처분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타적 의복재활용 처분행동의 경우 3년 동안 약 4점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의복재활용 처분행동은 3년 동안 약 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복재활용 처분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미·이재명(1997)의 연구에서는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할 때 친척이나 이웃에게 주어 처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녀회, 종교단체, 고물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처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헌옷을 구입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8.0%가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주(1989)의 연구에서는 입지 않는 의복의 활용 형태로 타인에게 물려주는 방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버린다', '그대로 보관한다', '고쳐 입는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남상우·맹정숙(1988)은 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지 않는 옷의 활용을 분석하였는데, 여중생의 경우 '그냥 입는다', '고쳐 입는다', 여고생의 경우 '입지 않는다', '그냥 입는다'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의복에 대한 재활용이나 환경에 대한 태도가 수동적임을 밝혔다.

허경옥(2007)의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의복소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고의류 구매성향과 의복대여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의복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수선행동이 낮게 나타났고 처분의 경우 폐기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류 재활용 상자 사용이나 친지, 주변에 의류를 주는 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선을 통한 의복의 재활용이 필요하며 의복의 재판매나 중고의복의 구매와 대여행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의식이 소비자의 의복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Shim, 1995; 이춘희, 1995; 박인숙, 1998; 박화순·서영숙, 1998; 노영래, 1999) 비교적 많이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및 재활용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이춘희(199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은 높은 편이나 의복관리행동수준은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환경과 관련된 의복관리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관리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은 중고의류시장도 덜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숙(1995)의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에 따른 사장의의복의 폐기실태를 분석하였는데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은 의복의 치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은 소비자 개인의 심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의복을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미·이재명(1997)의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부들이 의복폐기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환경보존을 위한 의복관리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의복처리 관심도 등 의복의 관리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마크 제품의 값이 약간 비싸더라도 구매의사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시월·조향숙(2000)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이타적 재활용 처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취업여성일 경우 용돈이나 월평균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보다는 의식적인 요인이 이타적인 재활용 처분행동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시월(20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교과목을 통한 환경교육뿐 아니라 환경활동 경험이 필요하며 학교이외의 경우 지역사회 및 타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직접적인 실험과 측정, 재활용 작품만들기 등 교내의 각종 환경활동 경험이 요구되며 청소년의 환경 친화적 소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매체활동의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영래(1999)는 미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재활용의식 행동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의식이 높은 경우 사장의의복을 친척·친구·이웃으로부터 받거나 수선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고, 월평균 의복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재활용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가 타인에게 기증하거나 중고시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미혼여성들이 중고구매와 의복의 과다소비 등 과다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심리학적 변수에 따른 친환경적 의복구매와 활용 및 처분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슬비(2008)의 패스트 패션 구매자의 중고구매성향과 구매 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쇼핑의 빈도와 쇼핑동행자 요인을 선정하였으나 각각의 요인과 구매와 구매 후 행동과의 영향관계를 밝힌 것이 아닌 요인추출을 위한 연구였다. 허경옥(200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유형과 환경친화적 의복 소비행동을 연결시킨 연구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구매유형에 따른 의복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분석하였는데 알뜰구매형 소비자의 중고의류 구매 성향이 높았고 과다구매형 소비자의 중고의류 구매성향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과다구매형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의복을 쓰레기로 버리는 폐기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집단과 광고의 영향,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성향 중 소비주의성향을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선정하여 친환경적 의복구매와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은 의복의 계획적인 구매, 친환경 제품의 선택구매, 내구성을 고려한 구매, 중고의류구매를 중심으로,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은 수선 및 재활용, 교환 및 판매, 기증, 보관 및 폐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패스트 패션의 대안인 슬로우 패션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란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옷으로 음식의 패스트푸드(fast food)에서 유추하여 만들어진 말이다(국립국어연구원 2004년 신어 보고서).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의복 과소비가 만연하게 되었고 의복폐기물이 증가되어 환경의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슬로우 패션이다. 슬로우 패션(slow fashion)은 패스트 패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행을 쫓기보다는 개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윤리적인 의복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인 의복소비는 생산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한 윤리적인 의복을 구매하고 재활용이나 핸드메이드 등을 적극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의복소비를 의미한다(이보은, 2008).

슬로우 패션은 윤리적인 소비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의복소비를 지향한다. 의복을 소비하는 행동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행을 반영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의복을 구매하고 한철이 지나가면 쓰레기로 폐기해버리고 마는 의복소비행동은 환경을 망치기 쉽다. 따라서 의복소비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타진하고 의복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보은

(2008)은 슬로우 패션으로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슬로우 패션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의복 구매, 의복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따져보기, 싫증난 옷 재활용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슬로우 패션은 환경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구매하고 착용하는 의복의 생산부터 공정하였는가의 여부가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오늘날 저렴한 가격으로 넘쳐나는 의복은 제3세계 빈곤층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등의 나라에서 의복생산을 위한 노동력 착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제 인도에서는 1,200-6,000만 명의 아동 노동자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고 한화로 약 2,300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김현경, 김정현, 2008). 물론 의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가격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의복을 구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한 무역(fair trade)<sup>1)</sup>에 따라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경제적 가격의 의복이 유통되고 구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 패션의 대안인 슬로우 패션을 친환경적 의복소비행동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선정하고 설문 내용 제시 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가 친환경적인 의복구매와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의 활용 및 처분에 대해 살펴보고 친환경적인 의복의 구매와 활용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의복관련요인, 의복관련 환경의식에 따라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제 3세계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대안무역운동이다. 공정무역은 교류를 통한 상호존중과 대화에 기초한 거래를 중시하고 국제시장가격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산가격을 보장하고 투명한 거래와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요인, 의복관련요인, 의복관련 환경의식에 따라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사회인구학적 요인, 의복관련요인, 의복관련 환경의식,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친환경적 구매 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작성자에 의한 자기기입법이 사용되었다. 예비조사는 2008년 8월 18일부터 22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보완 수정한 후, 2008년 8월 28일부터 2008년 9월 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리서치 업체인 엠브레인(www.embrain.com)을 통해 총 510부를 수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한 것을 제외한 500부를 유효자료로 분석에 이용하였다.<sup>2)</sup>

##### 2) 변수정의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척도는 선행연구(장경혜·박재옥, 1997; 김병미·이재명, 1997; 김시월·조향숙, 2000; 허경옥, 2007)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사회인구적 요인, 의복관련 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 환경의식 요인,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적 요인은 선행연구(박명희, 1995; 서정희, 1997; 노영래, 1999) 등에 따라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 소비지출규모로 구성되었다. 의복관련 요인은 선행연구(허경옥, 2007; 이슬비, 2008) 등을 참조하여 월평균 의복비, 의복구매횟수, 의복구매경로,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을 포함시켰다.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소비주의성향, 또래집단의 영향, 광고의 영향으로 총 15문항으로 소비주의성향 6문항, 또래집단 영향 4문항, 광고의 영향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비주의 성향은 선행연구(김영신, 1991; 편세린, 1997)를, 또래집단의 영향은 선행연구(이마용, 1991; 백경미, 1995; 김시월, 2003)의 연구를, 광고의 영향은 선행연구(송은경, 1997; 이승신, 1998; 이은정, 1999)의 연구를, 의복과 관련된 환경의식은 여성환경연대 자료집(2008)과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 및 관심 등을 환경의식변수로

2) 본 연구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의 사업인 '패스트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 및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슬로우 패션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자료를 바탕으로 수회되었음(2008.3.3-11.30).

사용한 선행연구(정유정·박옥련, 2006)를 참조하였다. 각 문항의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측정되었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의복구매시 고려사항,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적 요인, 의복관련 요인, 환경의식 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와 친환

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 카이검증( $X^2$ ), t-test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구매행동과 의복의 활용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총 500명이며, 조사대상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250명씩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25세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가구수 (%)	
성 별	남	250	50.0
	여	250	50.0
연 령	13세 이상~17세 미만	76	15.2
	17세 이상~20세 미만	84	16.8
	20세 이상~25세 미만	184	36.8
	25세 이상~30세 미만	156	31.2
직 업	중·고등학생	126	25.2
	대학, 대학원생	189	37.8
	직장인	148	29.6
	자영업·기타	37	7.4
거주지	동부권역	166	33.2
	동남권역	87	17.4
	서남권역	172	34.4
	중부권역	75	15.0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	10만원 미만	86	17.2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108	21.6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32	26.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6	21.2
	100만원 이상	68	13.6
	평 균	74.71(499.66)	
월평균 의복비	3만원 미만	81	16.2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111	22.2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62	32.4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01	20.2
	20만원 이상	45	9.0
구매경로	백화점	92	18.4
	대형쇼핑몰·할인점	133	26.6
	온라인(인터넷, TV홈쇼핑)	200	40.0
	시장 및 기타	75	15.0
의복구매횟수	4개월에 1회 이하	11	2.2
	2-3개월에 1회 정도	118	23.6
	1개월에 1회 정도	145	29.0
	1개월에 2~3회 정도	182	36.4
	1개월에 4~5회 정도	44	8.8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 (지난 1년 기준)	30% 미만	165	33.0
	30%이상~50% 미만	131	26.2
	50%이상~70% 미만	148	29.6
	70% 이상	56	11.2
계		500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30세 미만이 31.2%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대학·대학원생이 37.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직장인, 중·고등학생, 자영업·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는 동부권역(동대문, 중랑, 노원, 강북, 성북, 도봉, 광진, 성동)과 서남권역(강서, 양천, 구로, 관악, 동작, 영등포, 금천)이 각각 33.2%, 34.4%, 동남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과 중부권역(종로, 중구, 서대문, 은평, 용산, 마포)이 각각, 17.4%, 15.0%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소비지출규모는 대략 74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30만원-50만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 의복비는 5만원-1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만원-5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을 구매하는 경로는 인터넷이나 TV 홈쇼핑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이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형 쇼핑몰·할인점이 높게 나타났다. 의복구매횟수는 1개월에 2~3회 정도가 36.4%로 가장 많았고 1개월에 1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구매한 옷을 다시 입지 않는 비율은 30%미만으로 입지 않는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이상 입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의복구매와 의복활용 및 처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의 평균값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먼저,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소비주의성향, 광고의 영향, 또래집단의 영향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비주의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값 3.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고의 영향과 또래집단의 영향도 평균 3점을 내외하는 점수를 나타내어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소비주의성향은 6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신뢰도계수는 .77로 나타났으며 광고의 영향은 5문항으로 신뢰도계수는 .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집단의 영향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계수는 .72로 나타났다. 소비주의성향은 소비에 대한 집착, 소비욕구의 충족, 소비 및 쇼핑 선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행연구(김영신, 1991; 편세린, 1997)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광고의 영향은 광고에 대한 신뢰성, 선호, 광고를 통한 구매 의도 등으로, 또래집단의 영향은 또래집단과의 의사소통, 소비 수준의 동조, 또래집단을 의식하는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의복관련 환경의식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평균은 2.82점으로 나타났다. 의류생산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새 옷 착용시 새집증후군처럼 '새 옷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화재배시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사실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낮게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의복구매와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의복구매와 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의복구매 시 고려사항,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대한 것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정리되었다. 먼저, 친환경적인 의복

<표 2> 의복구매와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측정내용		평균값(5점 만점)	표준편차
사회심리학적 변수	소비주의성향	3.28	0.67
	광고영향	3.10	0.64
	또래집단의 영향	2.87	0.73
의복관련 환경의식	면화재배 시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사실을 안다	2.35	1.10
	의류생산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됨을 안다	3.12	1.10
	합성섬유의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안다	2.91	1.13
	새 옷 착용 시 새집증후군처럼 '새 옷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2.92	1.20
총 평균		2.82	.89

<표 3> 의복구매와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의복구매, 활용 및 처분행동		평균값(5점 만점)	표준편차
친환경적 의복 구매행동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옷만 구매	2.98	.97
	친환경제품을 선택하여 구매	2.12	.76
	유행보다 내구성을 고려하여 구매	3.45	.88
	중고의류구매	1.77	.86
의복활용처분행동	수선 및 재활용	2.47	.71
	교환 및 판매	2.04	.80
	기증	2.23	1.03
	보관	3.54	.87
	분리수거	3.05	1.21



구매행동에서는 유행보다 내구성을 고려하여 의복을 구매하는 것이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의류 구매가 1.7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허경옥(2007)의 연구에서 비합리적 구매행동 분석결과 중고의류 구매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의복활용 및 처분에서는 입지 않는 옷을 그대로 옷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3.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지 않는 옷을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지 않는 옷을 주변사람들과 바꾸어 입을 교환행동이나 중고판매상이나 인터넷몰에 판매하는 행동은 2.0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입지 않는 옷을 옷장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폐기하는 행동이 교환 또는 재판매행동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10-20대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의복활용 및 처분을 실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2.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의 집단별 차이

사회인구적요인, 의복관련 요인, 그리고 친환경의식에 따른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의 정도를 비교

<표 4> 사회인구적요인, 의복관련 요인, 친환경의식과 의복구매행동

변 수	집 단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		
		M	D	t / F
성 별	남 자	2.62		1.71
	여 자	2.54	-	
연 령	13세 이상~17세 미만	2.67		2.10
	17세 이상~20세 미만	2.50	-	
	20세 이상~25세 미만	2.53		
	25세 이상~30세 미만	2.64		
직 업	중학생 · 고등학생	2.61		.64
	대학 · 대학원생	2.55	-	
	직장인	2.58		
	자영업 · 기타	2.67		
월평균소비지출규모	10만원 미만	2.71		1.68
	10만원~30만원 미만	2.58		
	30만원~50만원 미만	2.56	-	
	50만원~100만원 미만	2.55		
	100만원 이상	2.49		
월평균 의복비	3만원 미만	2.80	c	8.67***
	3만원~5만원 미만	2.65	b	
	5만원~10만원 미만	2.57	b	
	10만원~20만원 미만	2.50	ab	
	20만원 이상	2.24	a	
의복구매 횟수	4개월에 1회 이하	2.82	b	3.17*
	2-3개월에 1회 정도	2.70	ab	
	1개월에 1회 정도	2.59	ab	
	1개월에 2~3회 정도	2.51	a	
	1개월에 4~5회 정도	2.47	a	
의복 구매경로	백화점	2.57		1.07
	대형쇼핑몰 · 할인점	2.59		
	온라인쇼핑 (인터넷 · 홈쇼핑)	2.54	-	
	시장 및 기타	2.68		
다시 입지 않은 옷비율 (지난 1년 기준)	30%미만	2.70	c	4.93**
	30%이상~50% 미만	2.58	bc	
	50%이상~70% 미만	2.52	ab	
	70% 이상	2.40	a	
의복관련 친환경의식	저	2.45	a	6.74**
	중	2.60	b	
	고	2.69	b	

\*p<.05, \*\*p<.01, \*\*\*p<.001

- 의복관련 친환경의식: 저(M-SD/2), 중(M-SD/2-M+SD/2), 고(M+SD/2)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5> 사회인구적요인, 의복관련 요인, 친환경의식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과의 관계

변 수	집 단	수선·활용			교환·판매			기증			보관			분리수거			
		M	D	t / F	M	D	t / F	M	D	t / F	M	D	t / F	M	D	t / F	
성 별	남 자	2.48			2.03			2.25			3.54			2.99			-1.22
	여 자	2.45		.50	2.04		-.20	2.20		.56	3.54		-.10	3.12			
연 령	13세이상~17세미만	2.54			2.34	b		2.30			3.37			3.26	b	3.03*	
	17세이상~20세미만	2.49		.97	2.10	a	5.35**	2.06		1.17	3.55		1.62	2.80	a		
	20세이상~25세미만	2.49			1.96	a		2.21			3.53			2.97	ab		
	25세이상~30세미만	2.39			1.93	a		2.30			3.63			3.19	b		
직 업	중학생·고등학생	2.49			2.27	b		2.22			3.40			3.09	ab	3.22*	
	대학, 대학원생	2.48		.43	1.93	a	5.50**	2.14		1.46	3.65		2.64*	2.86	a		
	직장인	2.46			1.96	a		2.36			3.56			3.27	b		
	자영업·기타	2.34			2.08	ab		2.14			3.38			3.05	ab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	10만원 미만	2.52			2.29	b		2.30			3.42			3.23		.69	
	10만원~30만원 미만	2.44			1.96	a		2.10			3.51			3.03			
	30만원~50만원 미만	2.52		.72	2.09	ab	3.63**	2.20		.66	3.61		.71	2.96			
	50만원~100만원 미만	2.46			1.90	a		2.29			3.58			3.03			
월평균 의복비	100만원 이상	2.35			1.95	a		2.26			3.54			3.09		3.78**	
	3만원 미만	2.35	ab		1.91			2.07			3.47			2.93	a		
	3만원~5만원 미만	2.46	ab		1.99			2.39			3.59			3.44	b		
	5만원~10만원 미만	2.52	b	2.45*	2.11		1.60	2.19		2.03	3.49		.56	2.94	a		
	10만원~20만원 미만	2.58	b		2.12			2.34			3.61			2.98	a		
의복구매 횟수	20만원 이상	2.25	a		1.89			2.00			3.58			2.89	a	1.40	
	4개월에 1회 이하	2.48			1.86			2.27			3.45			2.91			
	2~3개월에 1회 정도	2.44			2.02			2.25			3.58			3.10			
	1개월에 1회 정도	2.43		.26	2.00		.93	2.17		.18	3.57		.36	3.16			
	1개월에 2~3회 정도	2.49			2.04			2.23			3.48			3.04			
의복 구매경로	1개월에 4~5회 정도	2.54			2.24			2.30			3.59			2.68		.96	
	백화점 구입	2.33			1.86			2.43			3.73			3.08			
	대형쇼핑몰·할인점	2.50		1.44	2.11		2.19	2.20		1.59	3.50		2.45	3.06			
	온라인쇼핑	2.48			2.08			2.16			3.54			3.07			
입지않은 옷비율	시장 및 기타	2.52			1.99			2.19			3.37			2.99		2.86*	
	30%미만	2.45			2.04			2.34	b		3.42	a		3.19	b		
	30%이상~50% 미만	2.49			2.02		.74	2.06	a	5.48**	3.58	a	3.65*	2.89	ab		
	50%이상~70% 미만	2.52		1.23	2.09			2.39	b		3.51	a		3.16	b		
친환경 의식	70%이상	2.31			1.90			1.86	a		3.86	b		2.77	a	8.06***	
	저	2.34	a		1.93			2.01	a		3.69	b		2.73	a		
	중	2.51	b	3.66*	2.09	-	1.82	2.25	b	6.30**	3.50	ab	3.50*	3.15	b		
친환경 의식	고	2.54	b		2.06			2.43	b		3.43	a		3.26	b		

\*p<.05, \*\*p<.01, \*\*\*p<.001

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 <표 5>와 같이 정리되었다. 의복관련 친환경의식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점수가 낮은 집단(M-SD/2), 중간집단(M-SD/2~M+SD/2), 높은 집단(M+SD/2)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별로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을 분석하였다.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은 월평균 의복비, 의복구매횟수,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 의복관련 친환경의식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은 월평균 의복비를 3만원 미만 지출하고 4개월에 1회 이하로 의복을 구매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30% 미만인 우 다른 집단에 비해 친환경적 의복구매

를 하며 친환경의식이 낮은 집단인 경우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을 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의식과 친환경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계획구매, 중고의류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김용숙(1995)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수선 및 활용은 월평균 의복비와 친환경의식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의복비를 20만원이상 지출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의복을 수선하고 활용하는 정도가 낮았다. 반면, 월평균 의복비를 10만원~2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선 및 활용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의식이 낮은

집단은 의복수선 및 활용행동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교환 및 재판매행동은 13~17세미만의 연령층, 중·고등학생인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규모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기증은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30%~50% 미만, 70%이상인 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친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인 경우 보다 많이 기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지 않는 옷을 옷장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환경의식이 낮은 경우에는 보관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수거는

17~20세미만의 연령층, 대학·대학원생인 경우, 그리고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분리수거를 덜하고 있으며 월평균 의복비를 3만원-5만원 미만 지출하는 경우와 친환경의식이 중간이상일 때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의 집단별 차이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슬로우 패션을 소개하고 간단한 설명을 제시한 후

<표 6> 사회인구적요인, 의복관련 요인, 친환경의식과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와의 관계

변 수	집 단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				X <sup>2</sup>
		YES		NO		
		빈 도	%	빈 도	%	
성 별	남 자	199	79.6	51	20.4	5.22*
	여 자	218	87.2	32	12.8	
연 령	13세 이상~17세 미만	54	71.1	22	28.9	10.28*
	17세 이상~20세 미만	70	83.3	14	16.7	
	20세 이상~25세 미만	159	86.4	25	13.6	
	25세 이상~30세 미만	134	85.9	22	14.1	
직 업	중·고등학생	97	77.0	29	23.0	6.11
	대학, 대학원생	158	83.6	31	16.4	
	직장인	130	87.8	18	12.2	
	자영업·기타	32	86.5	5	13.5	
월 평균 소비지출규모	10만원 미만	69	80.2	17	19.8	4.12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86	79.6	22	20.4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12	84.8	20	15.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94	88.7	12	11.3	
	100만원 이상	56	82.4	12	17.6	
월평균 의복비	3만원 미만	68	84.0	13	16.0	4.13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88	79.3	23	20.7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35	83.3	27	16.7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90	89.1	11	10.9	
	20만원 이상	36	80.0	9	20.0	
의복구매횟수	4개월에 1회 이하	9	81.3	2	18.2	1.28
	2-3개월에 1회 정도	100	84.7	18	15.3	
	1개월에 1회 정도	117	80.7	28	19.3	
	1개월에 2~3회 정도	153	84.1	29	15.9	
	1개월에 4~5회 정도	38	86.4	6	13.6	
의복구매경로	백화점 구입	76	82.6	16	17.4	1.45
	대형쇼핑몰·할인점	107	80.5	26	19.5	
	온라인쇼핑(인터넷·홈쇼핑)	170	85.0	30	15.0	
	시장 및 기타	64	85.3	11	14.7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 (지난1년기준)	30%미만	133	80.6	32	19.4	2.67
	30%이상~50% 미만	114	87.0	17	13.0	
	50%이상~70% 미만	125	84.5	23	15.5	
	70%이상	45	80.4	11	19.6	
의복관련 친환경의식	저	119	79.9	30	20.1	2.47
	중	180	83.7	35	16.3	
	고	118	86.8	18	13.2	
계		417	83.4	83	16.6	

\*p<.05

<표 7>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에 따른 친환경적 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

변수	집단	친환경적 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									
				수선·활용		교환·판매		기증		보관		분리수거	
		M	t	M	t	M	t	M	t	M	t	M	t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	YES	2.61	3.00**	2.50	2.60*	2.07	2.32*	2.25	1.37	3.56	.94	3.05	
	NO	2.41		2.28		1.84		2.08		3.46		3.07	-15

\*p<.05, \*\*p<.01

<표 8>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간의 상관관계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수선·활용	교환·판매	기증	보관	분리수거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36***	.30***	.27***	-.19***	.10*

\*p<.05, \*\*\*p<.001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4%가 슬로우 패션 구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슬로우 패션을 구매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로 ‘슬로우 패션 소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슬로우 패션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슬로우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패스트 패션의 대안인 슬로우 패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교육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준다.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와 사회인구적요인, 의복관련 요인, 친환경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검정( $X^2$ )을 한 결과 <표 6>과 같이 정리되었다.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는 성별, 연령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에 대해 여성의 경우, 그리고 20-25세 미만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의복관련 요인이나 친환경의식에 따라서는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에 따른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에 따른 친환경적 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을 보면,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친환경적인 구매행동을 보이며, 의복활용 및 처분에 있어서도 수선 및 활용을 하고 교환 및 재판매를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는 친환경적인 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중에서 수선·활용, 교환·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스트 패션의 대안인 슬로우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는 친환경적인 의복 소비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슬로우 패션에 대한 실천의지는 의복구매시 환경과 건강, 의복생산의 공정성을

생각하게 하고 의복사용 시 경험하게 될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슬로우 패션에 대한 이해는 친환경적 구매행동을 하게 할뿐만 아니라 의복의 활용 및 처분에 있어서도 수선 및 활용행동을 높여 의복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교환 및 재판매를 통해 중고의복이 재사용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친환경적인 의복소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슬로우 패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표 8>은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간의 상관관계 결과이다.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은 보관을 제외한 모든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을 나타낼수록 의복을 수선 또는 활용하고 입지 않는 옷을 주변사람들과 교환하거나 재판매하고 있으며 기증 또는 분리수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관은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 경향이 낮을수록 입지 않는 옷을 옷장 속에 그대로 보관하여 두는 것을 의미한다.

4. 친환경적 의류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대한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정리되었다.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 의복비,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소비주의 성향, 광고의 영향, 친환경의식, 슬로우 패션의 구매의사였다. 관련요인 중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 의복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소비

<표 9>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집 단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수선·활용		교환·판매		기증		보관		분리수거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요인	성 별	여자(남자=1)	-0.08	-0.07	-0.10	-0.07	-0.06	-0.04	-0.12	-0.06	.03	.02	.16	.06
	연 령		.01	.04	-.03	-.21*	-.02	-.10	-.00	-.00	.03	.14	.01	.04
	직 업	(중학생·고등학생) 대학, 대학원생	.01	.01	.16	.11	-.36	-.22**	-.17	-.08	.14	.08	-.20	-.08
		직장인	.07	.06	.29	.19	-.26	-.15	.06	.03	-.04	-.02	.17	.06
		자영업·기타	.08	.04	.13	.05	-.07	-.02	-.16	-.04	-.23	-.07	-.08	-.02
	월평균 소비지출규모	-.03	-.08	-.01	-.03	-.02	-.03	.01	.01	-.01	-.02	-.06	-.06	
의복 관련 요인	월평균 의복비	(3만원 미만) 3만원이상~5만원미만	-.14	-.11	.13	.08	.18	.10	.30	.12	.05	.02	.51	.18**
		5만원이상~10만원미만	-.26	-.21**	.15	.10	.35	.20**	.02	.01	-.05	-.03	.05	.02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31	-.22**	.26	.14*	.40	.20**	.11	.04	.07	.03	.10	.03
		20만원 이상	.45	-.23***	.04	.02	.32	.11	-.18	-.05	-.04	-.01	.24	.06
	의복 구매 횟수	(4개월에 1회 이하) 2-3개월에 1회정도	.02	.02	-.12	-.07	.07	.04	.07	.03	-.09	-.04	.07	.03
1개월에 1회 정도		.00	.00	-.12	-.08	.05	.03	.03	.01	-.16	-.08	.19	.07	
1개월에 2~3회정도		.05	.04	-.10	-.07	.03	.02	.15	.07	-.34	-.19	.07	.03	
	1개월에 4~5회정도	.08	.04	-.06	-.02	.28	.10	.33	.09	-.25	-.08	-.22	-.05	
의복 구매 경로	(백화점 구입) 대형쇼핑몰·할인점	-.04	-.03	.18	.11	.25	.14*	-.24	-.10	-.19	-.10	-.05	-.02	
	온라인쇼핑 (인터넷·홈쇼핑)	-.08	-.07	.19	.13*	.26	.16*	-.24	-.12	-.19	-.11	.01	.01	
	시장 및 기타	-.00	-.00	.20	.10	.09	.04	-.29	-.10	-.30	-.12*	-.14	-.04	
다시 입지 않는 옷 비율 (지난 1년 기준)	(30%미만 입지않음) 30%이상 입지않음	-.07	-.06	.00	.00	-.05	-.03	-.29	-.13*	.12	.06	-.24	-.09	
	50%이상 입지않음	-.09	-.07	.02	.01	.02	.01	.03	.01	.05	.03	-.02	-.01	
	70%이상 입지않음	-.21	-.12*	-.20	-.09	-.26	-.10*	-.46	-.14**	.48	.18**	-.39	-.10*	
사회 심리 학적 요인	소비주의성향	-.14	-.17**	.02	.02	-.06	-.05	-.13	-.08	.10	.08	-.24	-.13*	
	광고의 영향	.12	.14**	.11	.10	.09	.07	.12	.07	-.01	-.01	.19	.10	
	도래집단의 영향	.02	.02	.05	.05	.12	.11*	.08	.05	.04	.03	.09	.05	
	친환경의식	.09	.14**	.11	.14**	.08	.09*	.20	.17***	-.12	-.13**	.23	.17***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yes=1)	-.18	-.12**	-.18	-.10*	-.23	-.11*	-.13	-.05	-.10	-.04	.08	.03	
	상수항		2.96		2.43		1.92		2.02		3.23		1.88	
	adj. R Square		.13		.05		.09		.07		.04		.08	
	F-value		4.05***		2.15**		2.97***		2.58***		1.88**		2.82***	

\*p<.05, \*\*p<.01, \*\*\*p<.001

Dummy: 성별, 직업, 월평균 의복비, 의복구매횟수, 의복구매경로,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

주의성향이였다. 즉, 월평균 의복비가 3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3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집단인 경우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주의성향이 낮을수록,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친환경적의식을 가질수록, 다시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30%미만인 경우에 비해 친환경적 의복구매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는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어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를 가질수록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중에서 수선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연령의  $\beta$ 값이 .22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선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 의복비, 온라인쇼핑, 친환경의식,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로 나타났다. 연령은 수선 및 활용과 부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의복을 수선 하거나 활용하는 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월평균 의복비는 3만원미만인 경우에 비해 10만원-20만원 미만인 경우 의복을 수선하거나 활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 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친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의복의 수선 및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 교환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관련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고등학생에 비해 대학, 대학원생의 경우 교환 및 판매를 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그밖에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 의복비는 3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5만원-20만원 미만 경우 교환 및 판매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의복구매경로는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보다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교환 및 판매를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다시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70%이상에 달하는 경우 교환 및 재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친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를 가지는 경우에 교환 및 판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친환경의식의  $\beta$ 값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의식이 높을수록 기증을 하는 경향이 높고 다시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30%이상, 그리고 70%이상 입지 않는 경우 30%미만인 집단에 비해 기증을 덜 하는 나타났다. 입지 않는 옷을 옷장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백화점 구입보다 시장 및 기타 장소에서 구입하는 경우, 다시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그리고 친환경의식이 낮을수록 옷장에 옷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리수거는 월평균 의복비를 3만원 미만 지출하는 경우에 비해 3만원-5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경우 분리수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다시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30%미만인 경우에 비해 70%이상 입지 않는 경우 분리수거를 덜 하며 친환경의식이 높을수록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을 살펴보면, 연령이 수선 및 활용에 대학 및 대학원생인 경우가 교환 및 판매와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의복관련 요인 중에서 월평균 의복비는 친환경적 의복구매와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보관과 기증을 제외한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과 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박화순·서영숙(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의생활 환경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생활행동을 구매, 관리 및 처분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구매와 관리부분에서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의복의 관리접수가 높게 나타났다.

의복구매경로는 백화점 구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경우 수선 및 활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대형쇼핑몰, 할인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환 및 판매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 및 기타를 통해 의복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관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70%이상인 경우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도 낮게 나타났고 교환 및 판매, 기증, 분리수거 행동도 낮게 나타났다.

소비주의성향은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분리수거행동과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심리학적 변수 중 광고는 친환경적 구매행동과, 또래집단의 영향은 교환 및 판매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을 보이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교환 및 판매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의식은 보관을 제외한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는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 수선 및 활용, 그리고 교환 및 판매행동과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어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를 가질수록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 수선 및 활용, 그리고 교환 및 재판매를 통한 의복활용 및 처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13-30세 미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을 조사하고 관련요인에 따른 집단별 차이검증과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관련 요인으로 사회인구적 요인, 의복관련 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 의복관련 친환경의식, 슬로우 패션 구매의사가 선정되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분산분석, 카이검증, t-te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인 3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보면

유행보다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의복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중고의류 구매에 관한 것으로 중고의류 구매행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의복을 구매함에 있어서 친환경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행동에 대한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은 입지 않는 옷을 그대로 옷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리수거함에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지 않는 옷을 주변사람들과 교환하여 입거나 중고판매상이나 인터넷몰을 이용하여 재판매하는 행동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입지 않는 옷을 수선 또는 재활용하거나 종교단체와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번 구매된 의복은 본인에 의해 소비되어지거나 분리수거를 통해 대부분 버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의복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의복이 개인의 사용가치를 다하게 되면 옷장에 쌓이게 되거나 폐기되어짐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서 문제는 소비자가 의복의 사용가치와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에 둘 것인가에 있다. 그 가치와 기간은 개인과 의복 관련변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의복소비행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의복활용 및 처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련 요인에 따른 친환경 의복구매 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복관련 요인에 따라서는 의복구매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요인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의복비를 3만원 미만 지출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의복구매횟수가 4개월에 1회 이하,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복관련 친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인 경우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과 관련요인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층에 따라서는 교환 및 판매, 그리고 분리수거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13~17세미만인 연령층은 입지 않는 옷을 교환 및 재판매하고 있었으며 분리수거에 대한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의 특성상 연령층으로 대변될 수 있는 직업요인은 교환 및 판매, 보관, 분리수거에 있어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환 및 판매, 분리수거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의복비의 경우에는 10만원~20만원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수선 및 활용하는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증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70% 이상 입지 않는 경우에는 옷장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친환경의식이 높은 경우에는 보관을 제외한 수선 및 재활용, 교환 및

재판매, 기증, 분리수거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의복관련 친환경의식은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뿐만 아니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의복소비를 위하여 소비자의 의복관련 친환경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관련 요인에 따른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연령층은 20~25세 미만인 경우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친환경적인 구매행동을 보이며, 의복활용 및 처분에 있어서도 수선 및 활용을 하고 교환 및 재판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는 친환경적인 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 중에서 수선·활용, 교환·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관련요인이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 의복비였고, 다음으로 소비주의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선 및 활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다음으로 친환경의식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친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의복을 수선 및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은 친환경의식, 분리수거는 월평균 의복비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의복관련 친환경의식은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과 의복활용 및 처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의 친환경의식은 소비자의 특정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바로 의복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친환경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복관련 친환경의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복관련 친환경 소비자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수정과 보완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복은 개인의 이미지를 비교적 손쉽게 나타낼 수 있는 제품으로 고 관여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의복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의식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요인들을

찾아 부정적인 요인은 제어하고 긍정적인 요인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소비주의 성향은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친환경적 의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주의 제어전략을 고안하고 의복관련 환경의식은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과 활용 및 처분을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들 이 중고의류를 구매하는 것과 교환 및 재판매하는 행동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복이 개인의 이미지를 비교적 쉽게 보여 줄 수 있는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타인이 쓰던 물건을 다시 사용하거나 교환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복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성하고 타인에게 전시하고자 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의복의 활용에 대해 소비자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단지 환경을 생각해서라는 대의적인 명분으로 친환경적인 의복소비행동을 달성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의복소비생활을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 파괴되는 환경이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에 따른 의복소비행동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경제생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비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소비자교육 콘텐츠와 실천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의 의식전환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 의류를 생산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인 제품(EITP: Environmentally Improved Textile Product)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이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다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을 보였으며 의복의 활용 및 처분에 있어서도 수선 및 활용이나 교환 및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슬로우 패션에 대한 구매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친환경적인 의복구매와 활용 및 처분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대안인 슬로우 패션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스트 푸드(fast food)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와 경각심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이 우리의 환경에 가져오는 폐단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음식 못지않게 우리가 직접 입는 의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과 패스트 패션의 대안인 슬로우 패션에 대한 내용을

시청각 교육자료로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교육 콘텐츠는 교육기관 간에 공유되어야 하며 필요할 때 손쉽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교육 콘텐츠 지원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을 갖는다.

첫째, 친환경적 의복구매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구매, 친환경제품 구매, 내구성을 고려한 구매, 중고의류구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을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항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친환경적인 의복구매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의복의 활용 및 처분행동은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3-30세 미만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30대 주부가 본인의 옷을 소비하는 행동과 그들 자녀의 옷을 활용 및 처분하는 행동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유아기 또는 아동기는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의복의 교환 또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실천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활용 및 처분에 있어 교환 및 재판매 행동이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연령층과 의복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을 확대하였을 경우에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의복관련 요인으로 월평균 의복비, 의복구매 횟수, 의복구매 경로,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의복을 다시 입지 않는 옷의 비율만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의복을 다시 입지 않는 이유와 비율을 같이 조사하여 의복의 소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의복관련 자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병미·이재명(1997).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조사-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2)**, 35-44.
- 김시월(2003). 청소년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6)**, 105-117.
- 김시월·조향숙(2000). 의복재활용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5-27.
- 김영신(1991). 소비자문제의 유형별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숙(1995). 의류제품 전 과정 관계자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존



- 행동,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김현경·김정현(2008). 패스트 패션의 현장-제3세계 생산자와 노동 인권의 현장.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토론회자료, 33-36.
- 남상우·맹정숙(1988). 여자 중·고등학생의 의복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봄·여름 의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2), 39-47.
- 노영래(1999). 소비자의 재활용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미혼 취업여성의 사장의복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노영래·김시월(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 재활용의식과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 미혼 취업여성의 사장 의류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163-178.
- 박명희 외(1995).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사용 및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자원 활용 측면의 소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79-87.
- 박명희 외(2005). 소비자의사결정론. 교문사.
- 박정희(2008). 의류소비자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토론회자료, 12-23.
- 박희순·서영숙(1998).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의생활 행동과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지, 36(10), 79-88.
-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시소비성향이 영향요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서문정(2003). 에코패션디자인의 개념정립과 사용자 참여 프로세스의 실천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서정희(1995). 소비자처분행동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 16호, 70-94.
- 서정희(1997).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및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27-40.
- 신은주(1989). 도시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여성환경연대 자료집(2008). 플러그를 뽑고, 한 박사 천천히, 17.
- 이미영(2008). 옷의 새로운 미래, 슬로우 패션과 희망무역.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토론회자료, 40-42.
- 이미용(1991). 과시소비 영향요인분석.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민표(1999). 노인소비자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사용과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이보은(2008). 슬로우패션으로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토론회자료, 24-32.
- 이슬비(2008). 패스트 패션 구매자의 충동구매성향과 구매 후 행동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춘희(1995). 소비자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복관리행동과 의류자원 재활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장경혜(1996). 사회책임적 의류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장경혜·박재욱(1997). 재활용 동기 부여에 따른 사회책임적 의류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1(4), 795-805.
- 정유정·박옥련(2006). 대학생의 개성과 환경의식에 따른 의류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49-15.
- 편세린(1997). 청소년의 소비지향적 태도와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허경옥(2007). 소비자구매행동유형에 따른 의류제품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23-36.
- Butler. S. M. and Francis. S.(1997). Effects of environmental attitudes on apparel purchasing behavio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2), 76-85.
- Chae. J. S and Chung.Y. S(1995). Consumer product disposal tendencies and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Korea. *Proceedings of Asian Consumer and Family Economic Association*, 1, 125-139.
- Hanson, J. W.(1980). A proposed paradigm for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1), 49-67.
- Harrell, G.D. and Mcconocha, D.M(1992). Personal factors related to consumer product disposal tendenc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97-417.
- Nicosia, F. M., & Mayer, R. N.(1976) Toward a sociology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5-75.
- Shim. S.(1995). Environmental and consumers' clothing pattern: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38-48.
- Veverka, M. T.(1974). *Inactive Clothing of Selected Families*. Iowa State University.

□ 접수일 : 2009년 03월 05일

□ 심사일 : 2009년 04월 0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6월 03일